

2023-06-12 (2023-21호)

06월 12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연준 이벤트 전후 증시 반응 초점... 원화 변곡점 저울질

서울, 6월1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 전후로 변동성을 키우며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 박스권 조정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75-1,325원이다.

연준 정책회의에 앞서 발표되는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결과에 원화는 글로벌 달러와 금리 및 증시 반응 따라 변동성을 키우면서 특히, 하방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도 엿보인다.

시장 예상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완화 추세가 재차 확인될 경우 6월 연준 금리 동결 전망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 속 최근 뉴욕 증시 강세에 탄력이 붙는 상황에서 이번 연준 회의 결과는 향후 위험자산과 통화 행보를 결정지을 단서가 될 전망이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이를 원론적인 발언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위험선호와 약달러 동반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다.

폭넓은 위험선호는 아니더라도 기술주 중심 랠리가 형성된다면 원화는 상대적 강세 흐름 속 그간 약세 갭 메우며 박스권 하단을 낮출 수 있어 보인다.

금주는 유럽중앙은행(ECB)와 일본은행(BOJ) 정책회의도 예정돼 있다. 연준 대비 이들의 매파적 행보가 돋보인다면 달러 약세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회의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투자심리가 중립적 수준에 그친다면 달러/원은 1,300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박스권이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겠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5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등 핵심 경제지표도 발표되는 가운데 위안 약세 확대 여부는 챙겨봐야 할 변수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6월12일(월)

- ⊙ 관세청: 6.1~1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제73주년 창립기념식 (09:30)
- ⊙ 한국은행: 2023년 5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6월13일(화)

- ⊙ 한국은행: 2022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정부질문(경제분야) (14:0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정부질문 (14:00)
- ⊙ 한국은행: 2023년 10차(5.25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6월14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 통계청: 2023년 5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일자리 TF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5월 고용동향 분석 (09: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 (10:00)
- ⊙ 한국은행: 2023년 4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BOK이슈노트 2023-18) (12:00)

6월15일(목)

- ⊙ 통계청: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10:00)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6월호) 발간 (10:00)
- ⊙ 기획재정부: '23.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00)

6월16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6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금주 세계 5대 이슈

⊙ 美 물가 지표와 FOMC

이번 주 미국의 메인 이벤트는 5월 물가 지표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회의다.

견실한 고용 지표로 금리 인상이 성장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 물가 압력을 낮추고 있다는 베팅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 시장은 환호할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전월 비 상승률은 0.3%로, 4월 0.4%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자들은 향후 추가 인상에 대한 단서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시장은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 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 증시의 견실한 성적으로 볼 때 투자자들은 이런 전망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아직 끝나지 않은 ECB의 금리 인상

유럽중앙은행(ECB)은 15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트레이더들은 다음 행보에 대한 단서를 주시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빨랐던 긴축 사이클이 곧 끝나리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유로존의 5월 인플레이션율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됐고,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2개월 연속 낮아졌다. 유로존 경제는 침체에 진입했으며 은행 대출 증가세는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ECB가 7월에 추가 25bp를 인상한 뒤 긴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ECB 관계자들은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약간 하회하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매파는 여름 이후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 BOJ, 정책 전환은 아직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신임 총재는 일본의 집단적 사고방식이 소비자 물가와 임금이 낮게 유지된다는 수십 년 간의 믿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4월 가계 지출은 큰 폭으로 감소해 가장 비관적인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조차도 하회했다.

노동조합들이 봄철 임금 협상에서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을 끌어냈음에도 실질 임금이 13개월 연속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런 상황은 BOJ가 16일 회의에서 통화 부양책을 조정하는건 너무 이르다는 시장의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우에다 총재는 임금 상승세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지속가능해질 때까지 초완화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신호해왔다. 하지만 BOJ가 정책 서프라이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안일함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中 비관론, 바닥 쳤나

중국이 곧 추가 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주가는 새로운 부동산 부양책 패키지 기대에 랠리를 보이고 있고, 5월 수출은 전망을 대폭 하회했지만 부양책 베팅 확대로 시장에 별 타격을 주지 않았다.

한 민간 서베이에서 신축주택 가격이 5월 중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고 주택 판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5월 신축주택가격 지표가 15일 발표된다.

15일 발표될 기타 경제지표에서는 실업과 소비자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경제지표가 추가 부양책 기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저점을 이미 지났을 수도 있다.

◎ 초대형 은행의 탄생

UBS가 이르면 12일 크레디트스위스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차대조표 1.6조달러, 운용 자산 5조달러의 초대형 은행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될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많은 스위스인들은 새로 탄생할 은행 규모가 너무 커, 작은 나라인 스위스에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규제가 어려울 것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 규제당국은 이미 크레디트스위스의 재앙을 피하지 못한 전적이 있다.

또 크레디트스위스의 핵심인 국내 영업부문과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다. UBS는 이미 합병 은행의 전체 임직원 12만명 중 일부에 대한 정리를 예고한 바 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분석)-美 경제 호조에 달러 ‘뜻밖의 강세’

뉴욕, 6월5일 (로이터) -

견실한 미국 경제가 달러에 뜻밖의 상승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달러지수는 최근 저점에서 2.5% 상승해 3월 이후 최고치 부근을 나타내고 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한 주간 투기세력들의 달러 숏 포지션은 축소됐다.

앨비스 마리노 크레디트스위스 전략가는 현재 "달러 강세는 완전히 미국 지표 호조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애론 허드 스테이트스트리트글로벌어드바이저스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달러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 숏 포지션이 아직 2년 만의 최고치 부근이고, 달러가 포스트 팬데믹 저점을 15% 정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약세론자들은 달러 하락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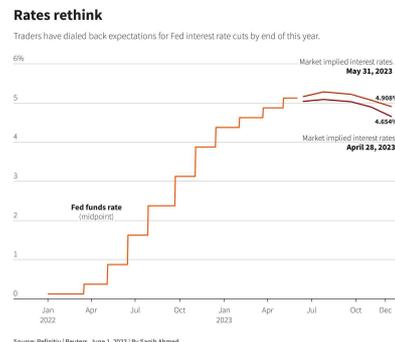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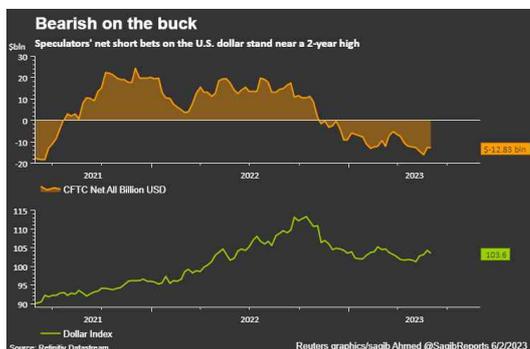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 금리 인상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견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약세론자들은 좌절하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국 지표가 확실히 약세로 돌아서 연준 금리 인하를 허용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달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5월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큰 폭 증가하고 소비자 지출과 신규 주택 판매 등 다른 지표들도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뒤로 미뤄지는 듯 하다.

2일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은 연말 금리가 4.98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5월 초에는 4.188%로 전망됐다.

미국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재무부가 올해 남은 기간 국제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달러 수요를 늘릴 잠재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